

##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 민 우

### Abstract

**Lee MinWoo.** 2012. 6. 30. **A Study on Korean Teaching Methods Using Antonymy.** *Bilingual Research* 49, 219-242. This study aims to suggest Korean teaching methods using antonymy. To attain the goal, this paper examines how antonymy is used in existing Korean textbooks beforehand and then suggests a teaching method to provide the list of antonyms along with their semantic functions and sentence patterns using them. Existing Korean textbooks use antonyms in three aspects: providing word pairs, providing antonymic pairs for the target sentence pattern, and using antonymy with examples. However, antonymy has not been used actively and systematically compared with the easiness of its recognition and their importance of use.

This study insists that in order to use antonymy variously and systematically, not only to provide and teach antonyms but also to suggest their semantic functions in sentences and sentence patterns showing typical antonymic construction are needed so that the learners can acquire the semantic functions which antonymy constructs. Moreover, it emphasizes that it is needed to suggest the list of antonymic words and show the antonymy of related words in the textbook within the semantic field of the identical sequence. With this method, Korean learners not only can acquire antonymic words but can acquire the ways to use them properly as well. Through follow-up researches on the semantic functions of sequential relationships such as antonymy and also synonymy and hypernymy, it is expected to suggest various methods to enhance Korean learners' ability to use Kore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한국어교육), Vocabulary Education(어휘교육), Teaching Method(교육방법), Using Vocabulary(어휘사용), lexical meaning(어휘의미), Semantic Relation(의미관계), Antonymy(반의관계), Antonym(반의어), Semantic Function(의미기능), Sentence Pattern(문형)

##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의어와 반의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어휘는 언어 사용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어 학습자 오류 유형 조사’(조철현 2002)에 따르면 외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 유형은 어휘(28.3%), 조사(24.4%), 철자(20.8%), 어미(16.2%)로 어휘 오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어휘 오류 가운데 어휘의 의미관계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의미적 오류가 30% 이상으로 어휘 사용의 문법적 오류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어 교육에서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한국어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어휘교육과 관련하여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의미관계 가운데 반의관계를 실현하는 반의어는 한국어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어휘 학습의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며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하지만 실제 의사소통에는 단순히 어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어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반의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의 관계를 이용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반의어를 이용한 교육은 단순히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친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어휘를 이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지식에 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반의관계를 언어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반의관계를 한국어 교육에 이용하는 것이 유용한 이유는 반의에 대한

인식이 언어보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현용(2000: 110-111)은 단어연상실험(Aitchison 1987: 117-118)에서 절반 이상이 반의어를 연상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어휘교육에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어휘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심리학 실험<sup>1)</sup>을 통해서 증명되었는데, 이는 어휘의 저장과 사용에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반의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반의어가 개념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문장 속에서 함께 사용될 확률이 높다는 점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어휘 제시에 있어서 반의어 쌍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sup>2)</sup>

그동안 어휘교육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반의관계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나마 반의관계에 대한 논의는 의미관계를 이용한 논의 속에서 어휘 습득과 기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sup>3)</sup>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의미장에 기반한 어휘 학습이라는 개별 어휘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관련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계열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홍윤기(2009: 188)가 지적한 것처럼 ‘좋다’와 ‘싫다’가 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반의관계를 이용하여 ‘좋거나 싫

- 
- 1) 반의어를 생성하도록 자극하는 것처럼 관련된 단어 혹은 문장을 이용하는 것이 단순히 해당 단어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억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Mulligan(2004), 조은혜·최경숙(2008) 등 다수의 국내외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
  - 2) 어휘적 차원의 반의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이승명(1973), 남기십(1974), 심재기(1975), 임지룡(1989)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어휘관계와 구분되는 개념적 의미관계에 대한 시각이 이민우(2010)에서 제기되었으며, 문장 속 반의어 사용에 대해서는 이광호(2009), 임채훈(2009) 등에서 밝히고 있다.
  - 3) 한정일(1999), 유진(2003)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휘 관계로서 반의어의 대립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관련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나 상관없다'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반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문맥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또한 반의어 자체가 아니라 반의어 사용의 의미 기능 양상과 사용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어떤 어휘를 전형적인 문장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의관계에 대한 교육은 조현용(2000: 111)이 지적한 것처럼 계열별 반의어 쌍을 이용하되 단순히 대립쌍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어휘를 다른 영역 학습의 중심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조현용 2000: 154)은 특히 문법 교육에서 문형을 중심으로 어휘를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때, 특정한 의미기능에 이용되는 문형과 밀접하게 연합된 어휘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문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용을 위한 특정한 의미기능을 드러내기 위해 반의관계의 표현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쉽게 전이되도록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특정한 의미관계가 특정한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로 김정남(2007)과 홍윤기(2009)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특정한 의미기능이 특정한 문법 형태로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용을 위해서는

---

4)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관심이 많지 않았던 의미관계와 문법형식의 연관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방식의 효과에 대한 검증은 아직까지 연구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 단순히 관련 의미장에 따라 어휘를 제시하는 것보다 문형 연습 속에서 어휘를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던 경험을 통해 볼 때 의미관계와 문형을 이용한 교육은 어휘를 쉽게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법의 이해와 사용 영역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미기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임채훈(2009) 또한 문장의 생성과 해석에 있어서 반의관계의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반의어들이 특정한 문법 형태로 연속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유의미한 반의어 연속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이민우(2012b)가 제시한 문법 형태들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의관계가 드러내는 문법적 패턴을 확인하는 것은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반의관계를 외국인 학습자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의 관계의 의미기능이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문법 형태와 패턴을 제시하여 학습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제안된 반의관계의 의미기능과 형식을 검토하여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sup>5)</sup>.

## 2. 초급 교재의 반의관계 교육 내용 검토

초급단계에서는 반의 어휘쌍을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휘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반의 어휘쌍을 일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의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

5)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의미장을 이용한 외국어 교육의 효과는 Crow & Quigley(1985: 497-513), 석용준(1999) 등에서, 문맥을 이용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는 이시영(2007) 등에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비록 이들 연구가 영어교육 분야이기는 하지만 외국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육 분야에도 유사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들 효과에 근거하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에 앞서 최근에 주요 대학에서 발행한 초급단계(1, 2단계) 한국어 교재<sup>6)</sup> 속에서 반의어와 반의관계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학 한국어 교재에서 반의관계를 이용한 교육은 본문 속 어휘 제시에 반의어 쌍을 이용하거나 반의어를 쌍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인접하여 제시하는 방법, 반의어를 목표 문형에 이용하는 방법, 예문 구성에 반의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1. 반의쌍 어휘 제시

가장 쉽고 단순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활발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은 반의어 쌍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의어를 쌍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조사한 교재들 모두 830~2000여 개의 어휘목록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의어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본문 속에 관련어의 일부로 제시하고 있었다. 교재 본문 속에서 반의어를 쌍으로 제시하거나 인접하여 제시한 경우는 가장 많이 제시한 교재가 8.6%(142개)였으며, 나머지 교재들에서는 3~5%(40~80개) 정도만을 제시하고 있었다<sup>7)</sup>. 또한 쌍으로 제시하는 반의어도 대부분 일부 형용사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한국어교육용어휘 1단계(초급)에 속한 982개의 어휘들 가운데 256개 정도의 어휘(35%)가 반의어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확연히 적은 숫자이다.

각 교재별로 반의어를 제시하고 있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6) 이곳에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최근에 발간한 5종 가운데 초급 단계(1, 2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외대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희대의 ‘한국어’, 고려대의 ‘재미있는 한국어’, 이화여대의 ‘말이 트이는 한국어’, 연세대의 ‘연세한국어’ 등이다.

7) 각 교재에 포함된 어휘 수와 제시된 반의어 쌍은 다음과 같다.

음과 같다.

한국외대 교재에서는 <1권 9과>에서 격식체 어미를 교육하면서 ‘큽니다/작습니다, 좋습니다/싫습니다, 많습니다/적습니다, 높습니다/낮습니다, 넓습니다/좁습니다, 재미있습니다/재미없습니다, 비쌉니다/싸입니다, 어렵습니다/쉽습니다’ 등의 형용사 반대말을 연습에 넣어 제시한다.

경희대 교재에서도 <1권 4>과와 <2권 16과>의 활용 제시 부분에서 ‘많다/적다, 있다/없다, 크다/작다, 길다/짧다’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2권 9과> 날씨 표현에서 단계화된 목록으로 ‘춥다.덥다, 맑다.흐리다’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반의어쌍이 체계적으로 고려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화여대 교재도 마찬가지로 <1권 13과>의 ‘~면’ 연습에서 ‘기분이 좋다/나쁘다, 시간이 있다/없다, 배가 고프다/부르다’ 등의 반의어 쌍을 제시하며 <2권 2과>에서 서술 형용사 연습으로 ‘폭신하다/딱딱하다, 어둡다/밝다, 넓다/좁다, 시끄럽다/조용하다, 가깝다/멀다, 부지런하다/게으르다, 날씬하다/뚱뚱하다’와 같은 반의어를 제시한다.

연세대 교재에서도 <1권 2과, 3과>에서 형용사 어휘 항목으로 ‘많다/적다, 크다/작다, 깨끗하다/더럽다, 조용하다/시끄럽다, 넓다/좁다, 춥다/덥다, 시원하다/따뜻하다’를 제시하며 <1권 4과> 동사 어휘항목에서도

교재	단계	총 어휘 수	제시 반의어 쌍
경희대	1급	626개	17쌍
	2급	677개	4쌍
고려대	1급	639개	25쌍
	2급	1006개	46쌍
연세대	1급	1181개	31쌍
	2급	903개	8쌍
이화여대	1급	828개	17쌍
	2급	830개	20쌍
한국외대	1급	403개	15쌍
	2급	434개	8쌍

‘가다/오다, 나가다/들어오다, 올라가다/내려오다’의 반의어 쌍을 제시한다.

앞선 교재들과는 달리 고려대 교재는 각 부분 항목별로 관련된 어휘들이 세밀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어휘 제시가 다른 교재에 비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어휘 제시를 ‘체격이 크다/작다, 눈이 크다/작다, 옷을 입다/벗다’처럼 결합 문맥과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의적 의미 제시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반의어를 목록화하여 제시하지 않고 관련어들과 섞어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다른 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의어쌍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의미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재에서 일부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반의어 쌍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며 경희대와 연세대 교재에서처럼 어휘연습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면서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교과 구성의 일부로서 대부분 형용사 반의어를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검토 대상으로 삼은 모든 교재에서 어휘 목록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형태순으로 나열 되어 있었고 의미관계에 따른 별도의 반의 어휘쌍 목록을 제시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 2.2. 문형 제시에 반의어 이용

한국어 교재 속에서 목표 문형을 제시하는데 반의어 쌍을 이용하고 있는 예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있다/없다’ 또는 ‘전/후’와 같은 일부 어휘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의어 쌍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재는 한국외대 교재였다. 한국외대 교재에서는 부정 대화쌍에서 반의어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1권 4과> 부정 표현 교육에 어휘적 부정으로 ‘있다/없다’를 제시한다. 이 외



에도 <1권 15과> ‘~한테 주다/~한테서 받다’, <1권 19과> ‘전에/후에’, <1권 31과> ‘~기가 쉽다/어렵다’, <1권 32과> ‘~기 전에/~(으)나 후에’, <2권 3과> ‘~(으)ㄴ 수 있다/없다’, <2권 22과> ‘~(으)ㄴ지 알다/모르다’, <2권 38과> ‘~(으)ㄴ 적이 있다/없다’처럼 문형 제시에 다른 교재와 달리 반의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화여대 교재도 이와 비슷하게 <1권 6과> ‘전에/후에, -기 전에/~(으)나 후에’, <1권 9과> ‘~(으)ㄴ 수 있다/없다’, <2권 1과> ‘~(으)러 가다/오다’, <2권 7과> ‘~에 좋다/나쁘다’, <2권 14과> ‘~는지 알다/모르다’와 같이 반의어쌍을 제시하거나 <2권 14과> ‘~(아어)도 괜찮다/~(으)면 안 된다’처럼 반의 관계의 문형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재에서는 반의관계를 문형 제시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1권 16>과의 ‘안’ 부정 교육에서 어휘적 부정어로 ‘재미있다/재미없다’를 제시하거나 <2권 23과>에서 ‘~(으)ㄴ 수 있다/없다’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 직접 목표 문형을 반의어 쌍으로 제시하는 예는 볼 수 없었다.

연세대 교재에서도 문형 제시에 직접적으로 반의어 쌍을 이용하는 예는 많지 않은데 <1권 9과> ‘~(으)ㄴ 수 있다’ 항목에서 부정형으로 ‘~(으)ㄴ 수 없다’를 <2권 2과> ‘~(으)ㄴ 적이 있다’ 항목에서 ‘~(으)ㄴ 적이 없다’를 다루고 있으며 <2권 5과> ‘~(으)ㄴ 지는지 알다/모르다’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려대 교재에서는 <1권 5과>에서 ‘~에 있다/없다’로 <1권 15과>에서는 ‘~(으)ㄴ 후’와 ‘~기 전’을 연속으로 제시하며 <2권 2과>에서는 ‘~(으)ㄴ 수 있다/없다’, <2권 10과> ‘~(으)ㄴ 적이 있다/없다’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목표 문형에 반의어 쌍을 이용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지만 몇몇 예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있다/없다, 알다/모르다’와 같은 몇몇 단어의 단순한 반의 어휘 제시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3. 반의관계 이용 예문 제시

대화쌍에 반의어를 이용하거나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드러내는 예문을 제시한 경우도 찾을 수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으며 반의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희대 교재에서는 <1권 4과>에서 ‘의자가 \_\_\_\_? / 아니요, 의자가 작습니다.’처럼 반의어를 이용한 질답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1권 7과>의 ‘아니다’ 교육에서는 앞서와 같은 반의쌍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2권 11과>에서 ‘-지만’에 대한 문형 연습에 ‘정동진은 멀지만 춘천은 가까워요.’와 같이 반의쌍을 이용한 연습을 제시하기도 한다.

한국외대 교재에서는 <1권 23과> ‘밤이지만 낮 같아요.’처럼 대조적인 예문을 보이거나, <1권 31과> ‘한국어는 배우기 쉬워요? / 아니요, 배우기 쉽지 않아요. 한국어 문법을 배우기가 정말 어려워요.’처럼 반의어를 이용한 대화쌍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예문은 본문 속에 단편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어서 반의관계 의미기능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연세대 교재에서는 <1권 9과> ‘-는데은데’ 문법 연습에서 ‘여름은 더운데 겨울은 춥습니다.’와 같은 형용사 반의쌍과 부정형을 이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며 <2권 5과> ‘-있었었다가’의 제시문을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옷을 입었다가 더워서 벗었어요.’, ‘버스를 탔다가 잘못 타서 내렸어요.’처럼 전형적으로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드러내는 예문으로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몇몇 교재들에서 반의관계를 이용한 예문을 생성하거나 제시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매우 한정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으

며 반의관계 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반의관계는 어휘학습뿐만 아니라 문법과 의미기능까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반의관계라는 기본적인 관계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sup>8)</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어휘학습의 기초단계에서부터 문형, 의미기능 습득까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반의관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단순한 어휘제시 차원에서 한발 나아가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반의관계를 구성하는 문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 3.1. 반의어 어휘목록 제시

한국어 교육용 어휘로 선정된 단어들만 보아도 반의관계를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용 어휘 1단계에 포함된 어휘 중에서 반의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된 반의어 쌍)를 갖는 단어는 1단계 어휘 총 727개 가운데 113개(15.5%)를 차지한다. 이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명사 497개, 동사 155개, 형용사 75개 중 반의어를 갖는 단어는 명사 39개(7.8%), 동사 37개(23.9%), 형용사 37(49.3%)개로 특히 형용사에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은 반의어 선정이 엄격한 편이어서 맥락적 반의어를 인정한다면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차지할 것이다. 맥락적 반의어를 인정한 『우리말반의어사전』과 비교하여 보면 명사 111개(15.3%), 동사 88개(56.8%),

8) 의미관계를 이용한 외국어 교육 방법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김민지(2008)에서 실험을 통해 의미관계를 이용한 한국어교육이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형용사 57개(76%) 총 256(35.2%)개로 3분의 1 이상이 반의어 쌍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휘를 반의쌍으로 제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크게 보아 초급 단계의 교육용 어휘목록의 3분의 1 이상이 반의어를 가지고 있으며, 어휘 연상에서 반의쌍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sup>9)</sup> 초급 단계의 어휘 기억에 반의어를 쌍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교재에서 어휘가 반의쌍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그나마도 일부 형용사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또한 반의어를 목록으로 제시한 경우도 찾을 수 없었다.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반의어 쌍을 목록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문 속에서 관련된 어휘들을 유의미한 반의쌍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초급 단계 한국어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반의어 쌍을 선별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용어휘 가운데 초급 단계(1, 2단계)에 속한 어휘를 검토하였다. 우선 이들 어휘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반의어를 기술하는 경우 기본적 의미에 대응하며 맥락적 변이가 높아 보이지 않는 의미를 대상으로 반의어를 추출하고, 이들 반의어를 다시 한국어교육용어휘와 비교하여 해당 어휘의 반의어가 동일한 초급 단계(1, 2단계)에 속하거나 바로 위의 단계(3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초 반의어 목록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광범위한 반의어 목록을 신고 있는 『우리말반의어사전』을 통해 초급 단계의 어휘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반의어가 기술된 경우 기본적 의미에 대응하며 맥락적 가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반의어를 선별하여 앞서 선별한 목록 가운데 1, 2, 3단계 이외의 단계에

9) 심재기(1975: 136-137) 및 Aitchison(1987: 117-118) 참조.

속한 반의어와 함께 확장 반의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성한 초급 단계 반의어 목록을 순서쌍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초급단계 교육용 반의어 목록

품사	단계	반의어 목록
명사 반의어	기초 (24쌍)	<흰색/검은색>, <결혼/이혼>, <여동생/남동생>, <여자/남자>, <남편/아내>, <여학생/남학생>, <밤/낮>, <대답/물음>, <도착/출발>, <등산/하산>, <아들/딸>, <숙/결>, <위/아래>, <어머니/아버지>, <아침/저녁>, <안/바깥>, <앞/뒤>, <왼쪽/오른쪽>, <오후/오전>, <외국/내국>, <외국인/내국인>, <전/후>, <지하/지상>, <할머니/할아버지>
	확장 (60쌍)	<가운데/가장자리>, <봄/가을>, <걱정/안심>, <건강/허약>, <여름/겨울>, <고기/채소>, <고향/타향>, <학생/교수>, <현실/꿈>, <처음/끝>, <앞/나중>, <날/달>, <남쪽/북쪽>, <작년/내년>, <내일/어제>, <오빠/누나>, <형/달>, <대화/독백>, <도시/시골>, <동물/식물>, <형/동생>, <서쪽/동쪽>, <처음/마지막>, <말/글>, <머리/꼬리>, <몸/정신>, <문제/답>, <물/불>, <위/밑>, <사람/짐승>, <사랑/미움>, <산/들>, <선생/학생>, <설명/기술>, <손/발>, <손가락/발가락>, <주인/손님>, <손가락/젓가락>, <시간/공간>, <시작/끝>, <아이/어른>, <아저씨/아주머니>, <약/독>, <양복/한복>, <어린이/어른>, <오늘/어제>, <동생/언니>, <엄마/아빠>, <오늘/내일>, <외국어/모국어>, <위험/안전>, <작년/금년>, <오래/잠깐>, <졸업/입학>, <주말/주초>, <지금/옛날>, <대답/질문>, <처음/마지막>, <필요/불필요>, <땅/하늘>
동사 반의어	기초 (21쌍)	<가다/오다>, <걸어가다/걸어오다>, <결혼하다/이혼하다>, <켜다/끄다>, <나가다/들어오다>, <올라가다/내려가다>, <내려오다/올라오다>, <내리다/오르다>, <눕다/이르다>, <열다/닫다>, <도착하다/출발하다>, <돌아오다/돌아가다>, <들다/내리다>, <알다/모르다>, <반다/주다>, <입다/벗다>, <사다/팔다>, <살다/죽다>, <안되다/잘되다>, <웃다/울다>, <자다/깨다>
	확장 (45쌍)	<배우다/가르치다>, <걷다/뛰다>, <시작하다/끝나다>, <시작하다/끝내다>, <들다/나다>, <나오다/나가다>, <날다/기다>, <들이다/내다>, <넣다/빼다>, <일하다/놀다>, <들다/놓다>, <댈다/더럽히다>, <도와주다/방해하다>

		<돕다/방해하다>, <받다/드리다>, <말하다/듣다>, <들어가다/나가다>, <떠나다/머무르다>, <마시다/뺏다>, <만나다/헤어지다>, <만들다/없애다>, <먹다/뺏다>, <못하다/잘하다>, <묻다/대답하다>, <사랑하다/미워하다>, <생기다/없어지다>, <서다/앉다>, <계속하다/쉬다>, <벗다/신다>, <좋아하다/싫어하다>, <벗다/쓰다>, <씻다/더럽히다>, <일어나다/자다>, <듣다/이야기하다>, <일하다/쉬다>, <얻다/잃다>, <잃어버리다/줍다>, <있다/기억하다>, <기억하다/잊어버리다>, <일어나다/잠자다>, <잡다/놓다>, <쓰다/지우다>, <찾다/감추다>, <내리다/타다>, <죽다/태어나다>
형용사 반의어	기초 (23쌍)	<멀다/가깝다>, <가볍다/무겁다>, <갈다/다르다>, <길다/짧다>, <좋다/나쁘다>, <높다/낮다>, <넓다/좁다>, <늦다/이르다>, <달다/쓰다>, <춥다/덥다>, <많다/적다>, <맑다/흐리다>, <어둡다/밝다>, <배고프다/배부르다>, <비싸다/싸다>, <빠르다/느리다>, <어렵다/쉽다>, <슬프다/기쁘다>, <있다/없다>, <유명하다/무명하다>, <크다/작다>, <재미있다/재미없다>, <싱겁다/짜다>
	확장 (19쌍)	<고프다/부르다>, <건강하다/허약하다>, <어렵다/괜찮다>, <깨끗하다/더럽다>, <따뜻하다/춥다>, <다르다/똑같다>, <뜨겁다/차갑다>, <맛있다/맛없다>, <나뉘다/맞다>, <좋다/싫다>, <아름답다/추하다>, <예쁘다/미쁘다>, <위험하다/안전하다>, <조용하다/시끄럽다>, <중요하다/사소하다>, <즐겁다/괴롭다>, <친절하다/불친절하다>, <필요하다/불필요하다>, <쉽다/힘들다>

학습자가 기억책략에 유용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 빈도가 높아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0)</sup>. 또한 반의어는 맥락에 민감하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제시할 때는 결합 문맥과 함께 특정 반의어를 구성하는 본문 내용과 관련된 상위 개념 속에서 반의관계를 익힐 수 있도록 목록화하여 제시해야 한다. 기초 반의어 목록을 어휘장에 기반하여

10) 빈도가 높은 예들이 상위 의미로 증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태·의미상 무표적인 경향이 높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억책략 효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예들을 먼저 제시한 후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범주에 따른 초급 단계 반의어 목록 예시

영역	반의어
명사	공간/위치 <안/바깥>, <앞/뒤>, <왼쪽/오른쪽>, <외국/내국>, <전/후>, <지하/지상>, <위/아래>, <속/겉>
	시간 <밤/낮>, <아침/저녁>, <오후/오전>
	가족/사람 <여동생/남동생>, <여자/남자>, <남편/아내>, <여학생/남학생>, <아들/딸>, <어머니/아버지>, <외국인/내국인>, <할머니/할아버지>
	행위 <결혼/이혼>, <대답/물음>, <등산/하산>, <도착/출발>
동사	이동 <가다/오다>, <걸어가다/걸어오다>, <나가다/들어오다>, <올라가다/내려가다>, <내려오다/올라오다>, <내리다/오르다>, <도착하다/출발하다>, <돌아오다/돌아가다>
	행위 <결혼하다/이혼하다>, <사다/팔다>, <살다/죽다>, <자다/깨다>
	동작 <웃다/울다>, <입다/벗다>, <들다/내리다>, <켜다/끄다>, <열다/닫다>, <받다/주다>
	인식 <알다/모르다>, <안되다/잘되다>, <늦다/이르다>
형용사	감정 <좋다/나쁘다>, <슬프다/기쁘다>
	감각 <춥다/덥다>, <달다/쓰다>, <싱겁다/짜다>
	기분 <어렵다/쉽다>, <재미있다/재미없다>, <배고프다/배부르다>
	상태 <멀다/가깝다>, <가볍다/무겁다>, <갈다/다르다>, <길다/짧다>, <높다/낮다>, <넓다/좁다>, <맑다/흐리다>, <어둡다/밝다>, <크다/작다>, <많다/적다>, <있다/없다>

### 3.2. 반의관계 의미 기능을 이용한 문형 제시

반의관계가 맥락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특정한 문형이 반의관계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반의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어휘 목록 제시뿐만 아니라 반의관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형과 의미기능을 제시해야 한다.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인 반의관계의 의미 기능은 기초단계에서 이용하는 부정과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화쌍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단계의 기본적인 대화쌍 구성에서부터 반의관

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ㄱ. A: 이 사람이 남자입니까?

B: 아니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ㄴ. A: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

B: 아니요,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반의어들이 문장 속에서 전형적으로 이용되는 양상은 홍윤기(2009)<sup>11)</sup>와 이민우(2012b)<sup>12)</sup>에서 잘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민우

11) 홍윤기(2009: 201-202)에서 제시한 반의관계 구성 유형

가. 호응구성 : ① ‘-건 -건’, ② ‘-든지 -든지’, ③ ‘-(으)르까 (으)르까’, ④ ‘-거니-거니’, ⑤ ‘-는 등-는 등’, ⑥ ‘-다가-다가’, ⑦ ‘-(으)르지-(으)르지’, ⑧ ‘-네-네’

나. 동어반복구성: ① ‘A(으)면 A(으)ㄴ 대로, ② B(으)면 B(으)ㄴ 대로’, ③ ‘A다면 A고, B다면 B고’, ④ ‘A다가도 B고’, ⑤ ‘B다가도 A(으)ㄴ’, ⑥ ‘A(으)면 A지, B’, ⑦ ‘A(으)면 A(으)르수록 B’ (이상, A는 B의 반의어)

다. 합성어구성: 오나가나, 오락가락, 온데간데없이 등

라. 관용적표현: ① 죽다 VS. 살다: 죽고 못 산다, 죽으나 사나, 죽을 등 살 등, 죽기 살기로, 죽자 사자, 등

② 알다 VS. 모르다: 알게 모르게, 알다가도 모를, 등

③ 오다 VS. 가다: 오도 가도, 오라 가라, 온다 간다, 왔다 갔다, 등

마. 속담: 어휘적 반의관계가 드러난 경우

- ①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잣밥에만 맘이 있다.
- ② 흑 때러 갔다 흑 붙여 온다.
- ③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④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 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바. 속담: 비유와 추론을 통해 반의관계가 드러나는 경우

- 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②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③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
- ④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2012b)는 반의어들이 연속될 때 구성하는 특정한 형식을 통계적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제시한 반의관계를 드러내는 구성 양상 가운데 문형의 복잡성과 전형성, 빈도, 반의관계와의 유기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성들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⑥ 우물에 가서 송냥을 달라고 한다.

사. 부정표현: ① ‘A지 않고 B’ (이하, A는 B의 반의어), ② ‘A지 못하고 B’, ③ ‘A가 아니라 B’, ④ ‘A지, B가 아니다’

아. 연결표현: ① ‘-았/었더라도’, ② ‘-았/었기에망정이지’, ③ ‘-(으)ㄴ 바에야 (차라리)’, ④ ‘-겠다 싶으면’, ⑤ ‘-라면 -느니만 못하다’, ⑥ ‘-(으)ㄴ 커녕’ (⑦, ⑧은 조사대용 표현), ⑦ ‘-은 고사하고’, ⑧ ‘-(으)ㄴ/는대신에’, ⑨ ‘-(으)ㄴ 나머지’

## 12) 이민우(2012b)에서 제시한 반의어 연속 구성 형식

### ㄱ. 연속 구성

명사: ① ~와/과 ~, ② ~보다 ~, ③ ~(이)랑 ~

동사: ① ~다 ~, ② ~다가 ~

형용사: ① ~거나 ~, ② ~면서 ~

### ㄴ. 연속 반복 구성

명사: ① ~(이)나 ~(이)나, ② ~인지 ~인지, ③ ~이고 ~이고, ④ ~이나 ~이나, ⑤ ~이건 ~이건

동사: ① ~느냐 ~느냐, ② ~는지 ~는지, ③ ~든 ~든, ④ ~다 ~다

형용사: ① ~(으)ㄴ까 ~(으)ㄴ까, ② ~다가 ~다가, ③ ~든 ~든, ④ ~건 ~건, ⑤ ~다 ~다, ⑥ ~거나 ~거나, ⑦ ~냐 ~냐, ⑧ ~(으)ㄴ가 ~(으)ㄴ가

### ㄷ. 연속 기타 구성

명사: ① ~부터 ~까지

동사: ① ~도 ~도 못하-, ② 알-지 모르-, ③ 알게 모르게, ④ 주거나 받거나, ⑤ 죽네 사네, ⑥ 오르락 내리락

형용사: ① ~지도 ~지도 않-, ② ~지 ~지 않-, ③ 있으나 없으나

13) 단계별 교육 문형 선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단계별 교육 문형 선정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문형의 사용빈도와 난이도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김유정 1998, 김재욱 2009) 이외에도 학습자 동기와 담화기능 등도(민현식 2009)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었다. 난이도는 형태, 의미,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는 형태적 단순성, 의미적 명료성, 기능의 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용 가능한 의미기능과 문

단순한 반복은 초급단계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형태적으로도 단순하며 의미기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도가 높은 문법 요소 가운데 반의어를 이용한 반복 구성은 초급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 부정 표현 또한 형태적·의미적으로 단순·명확하기 때문에 초급단계에서 다룰 수 있다. 특정한 연결 표현 중에서도 빈도가 높고 범위가 넓은 경우 또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민우(2012b)가 지적한 것처럼 이들 문형이 항상 ‘반의어’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형만을 익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의적 개념을 드러내는 의미기능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의적 개념이 문장 속에서 특정한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방식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임채훈(2009: 244)은 반의관계가 문장 속에서 특정한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면 반의관계의 단어쌍이 그것이 갖는 의미특성을 바탕으로 문장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것과, 반의관계의 단어쌍이 절 간의 의미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전칭과 이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대조, 양보, 전이, 부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가.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잘 살펴보세요.

나. 크든 작든 하나만 선택하시오.

(3) 르. 사람은 겉보다 속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나. 이것은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이다.

다. 잠을 자다가 깬다.

르.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싫어하지 않는다.

---

형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형태적으로 단순하고 빈도상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하되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고려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는 전칭과 이분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임채훈(2009: 247)이 지적한 것처럼 전칭과 이분은 완전히 구분되거나 배타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둘 중 어느 곳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은 후행하는 표현들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2ㄱ)은 ‘모두’라는 부사로, (2ㄴ)은 ‘선택하다’라는 동사로 인해 전칭과 이분의 의미기능으로 구분된다. 만약 (2ㄱ)의 예문에 ‘모두’가 사용되지 않고 (2ㄴ)처럼 ‘선택’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분의 의미로, (2ㄴ)의 예문을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면 전칭의 의미로 파악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3ㄱ)은 대조, (3ㄴ)은 양보, (3ㄷ)은 전환, (3ㄹ)은 부연의 의미기능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홍윤기(2009)와 이민우(2012b)는 이러한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이 특정한 문법요소들이 사용된 반의어 연속 구성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제시한 반의어 구성 문법 요소들 가운데 초급 단계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문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문법 형태소 사용빈도 95% 범위에 속하는 요소들을 선별하였다.<sup>14)</sup> 이후 이들 문법 요소들을 앞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들의 초급 단계 문형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개한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문법항목<sup>15)</sup>을 참고하여 초급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형을 작성하였다. 반의관계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문형을 의미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 14) 문법 사용빈도 95%이내에 속하는 문법 요소는 조사가 25개 유형, 연결어미가 30개 유형이며 이중 반의구성에 이용되는 것은 조사 ‘와/과, 부터, 까지, 보다’, 어미 ‘-게, -지, -다, -면서, -다가, -거나, -는지, -(으)나, -(아어)도, -(으)ㄴ가, -(으)니까, -는가’ 등이었다.(한국어 문법형태의 빈도 순위에 대해서는 강범모·김홍규(2009) 참조)
- 15)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문법항목은 연결어미 12개, 종결어미 22개, 복합표현 33개, 조사 32개 유형 등 총 11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6) 여기에서 제안하는 반의관계 의미기능을 이용한 교육 방법은 기존에 이용하던 ‘문형’ 교육처럼 ‘문법’의 이해나 사용에 초점이 놓인 것이 아니라 어휘의 이해와 사용에 초점이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목록은 반의관계의 의

<표 3>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에 따른 초급 단계 문형 유형  
(A와 B는 반의어)

의미기능	어휘 유형	문형	예문
전칭/이분	명사	A와/과 B A부터 B까지	위와 아래 모두 잘 찾아보세요.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했어요.
	동사	A-는지 B-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형용사	A-거나 B-거나 A-(으)ㄴ가 B-(으)ㄴ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좋아합니다. 같은가 다른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조	명사	A보다 B	남자보다 여자가 인내심이 강하다고 해요.
양보	형용사	A-면서 B	이것은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환	동사	A-다가 B A-다가 B-다가	잠을 자다가 깬어요. 울다가 웃다가 정신없이 지냈어요.
부연	형용사	A-지 B-지 않-	제 집은 여기서 가깝지 멀지 않아요.

이처럼 반의관계가 구성하는 문장 표현 형식을 이용하여 반의어를 교육하는 것은 반의어 어휘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의관계의 개념을 기반으로 반의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4. 결론

이 연구는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

의미기능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기능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면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초급 단계의 의미기능은 ‘동시성’이지만 반의관계의 의미기능을 드러내는 것은 ‘양보’의 의미이다. 따라서 ‘-면서’는 적절한 반의관계 어휘와 함께 ‘양보’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시성’과는 별도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위해 먼저 기존 한국어 교재들에서 반의관계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반의어 목록 제시와 함께 반의관계의 의미기능과 문형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반의어를 어휘쌍 제시, 목표 문형에 반의쌍 제시, 예문에 반의관계 이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용하고 있었지만 반의관계가 가지는 인식의 수월성과 사용 비중에 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반의관계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의관계 어휘목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교재 내 관련 어휘의 반의적 관계를 동일 계열의 의미장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의어 어휘만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의관계가 구성하는 의미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반의 구성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문형을 전칭/이분, 대조, 양보, 전환, 부연 등과 같이 문장 속에서의 의미 기능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반의 어휘 습득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동의, 상하의 등의 계열적 관계들의 의미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제시와 함께 이러한 교육 방안의 실제 효용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주)날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편(2010). 넓은풀이 우리말 반의어 사전, 서울: (주)날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 강범모 · 김홍규(2009). 한국어 사용빈도, 서울: 한국문화사.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동아.
- 김민지(2009). 의미장을 활용한 수업이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쪽~36쪽.
-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교육> 제10집, 한국문법교육학회. 65쪽~91쪽.
- 김정남(2007). 동일 어미 반복 구문의 통사와 의미 -한국어 문법, 어휘 연계 교육에 대한 제안-,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49쪽~75쪽.
- 남기심(1974). 반대어고, <국어학> 2, 국어학회. 133쪽~139쪽.
- 민현식(2009). 한국어교육용 문법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제2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1쪽~130쪽.
- 석용준(1999). 의미장 접근법과 핵심어법이 외국어 기억조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4호,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65쪽~187쪽.
- 손남익(2006).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 의미학회. 65쪽~83쪽.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3, 국어학회. 135쪽~149쪽.
- 유진(200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가볍다/무겁다}의 의미교수모형,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호(2009). 코퍼스를 활용한 반의어의 총체적 목록 확보 방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 56, 국어학회. 281쪽~318쪽.
- 이민우·박창남·이훈병(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한국어 강의평가 문항개발과 중요도 분석,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369쪽~388쪽.
- 이민우(2010). 국어 다중의미 연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민우(2011a).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요소의 의미관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 의미학회. 235쪽~257쪽.
- 이민우(2011b). 어휘 의미의 자체대립 유형 연구,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55쪽~74쪽.
- 이민우(2012a). 의미확립 단계를 이용한 한국어 다의어 교육 방안, <언어학 연구> 22, 한국중원언어학회. 163쪽~177쪽.
- 李民友(2012b). 말뭉치 統計分析을 이용한 反意語 連續 構成 研究, <語文研究> 153, 韓國語文教育硏究會. 85쪽~107쪽.
- 이승명(1973). 국어 상대어론(I), <어문논총> 8-1, 경북어문학회. 87쪽~93쪽.
- 이시영(2007). 어휘 교수법이 어휘의 기억과 어휘 활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희·서진숙(2010).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의 실제,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195쪽~218쪽.

- 임지룡(1989).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채훈(2009).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 <한국어 의미학> 30, 한국어 의미학회. 231쪽~256쪽.
- 조은혜·최경숙(2008). 반의어와 유의어의 생성이 초등학생의 기억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한국심리학회. 1쪽~14쪽.
- 조철현(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유형 조사 연구, 2002년도 국어정책 공모과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 조현용(201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서울: 박이정 출판사. 110쪽~111쪽.
- 한정일(1999).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윤기(2009). 문장에서의 반의관계 실현 방식 연구 - 반의관계와 문법 구성 및 표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85쪽~204쪽.
- Crow, J. T. & Quigley, J. R(1985). A Semantic Field Approach to Passive Vocabulary Acquisition for Read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19. pp. 497~513.
- Jean Aitchison(1987). *Words in the mind :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Oxford, Basil Blackwell. pp. 117~118.
- Mulligan, N. W.(2004). Generation and memory for contextual detai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30. pp. 838~833.
- <한국어교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0, 2004). 한국어 초급1,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2001). 한국어 초급2,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8). 재미있는 한국어1, 서울: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09). 재미있는 한국어2, 서울:교보문고.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1,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연세한국어2,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8, 2009). 말이트이는 한국어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1999, 2008). 말이트이는 한국어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2,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42 이중언어학 제49호(2012)

이민우(Lee MinWoo)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임강사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신분관 807호

전화번호: 02-2173-3416(011-9945-5016)

전자우편: [minu@hufs.ac.kr](mailto:minu@hufs.ac.kr)

투고일자: 2012. 4. 18

심사(수정)일자: 2012. 6. 21

게재결정: 2012. 6. 22